

다산포럼

아! 스마트폰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퇴계학연구원장

열마 전 중심을 먹기 위해 어느 중국 음식점에 들렀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 네 명이 들어와 음식을 시키고 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다.

식사 도중에도 각자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각자 계산을 하고 역시 말 없이 나가 버렸다. 아마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인 듯한데 이들은 말없이 들어왔다가 말없이 나갔다. 나로서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기가 내릴 층을 놓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버스나 전철 안에서는 물론,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 뒷사람을 방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 가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심지어 대중목욕탕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고개를 들지 않는 사람을 중국에서는 ‘저두족’(低头族)이라 부른다. 문자 그대로 ‘고개 숙인 족속들’이다. 우리보다 IT 후발국인데도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열풍이 가정예까지 침투하여 중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국민가족관계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家長)의 70%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두족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스마트폰에 빼앗긴 어린 자녀는 애정 결핍에 걸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보다 자녀

의 얼굴을 보자’는 말까지 생겼다고 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독일과 영국의 대학이 합동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10분간 방안에 홀로 남겨두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확인 할 때까지의 시간을 재어 봤더니 44초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인간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리서치 전문 기업의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급기야 ‘스몸비족’(smombie)이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는데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다. 좀비는 서아프리카의 한 원시 종교에서 나온 말로, 그 종교의 사제(司祭)가 인간으로부터 영혼을 빼아 내 버린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영혼이 없는 좀비는 사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가 된다.

현대에서 좀비는 ‘자발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타인에게 조종되거나 생물적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스몸비족’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외부 세계

와 단절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이 스몸비족의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이다. 당연히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절벽에서 추락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여성이 강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어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전용도로를 만든 나라도 있고,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나라도 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어디를 걷는지도 모르는 보행자를 위해 길바닥에 특수 신호등을 설치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휴대전화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해 준다’라 말한 핀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지적이 이를 회화해준다. 그러나 인간이 기계인 스마트폰의 조종을 받는 ‘좀비’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교단에서

조경(造景) 좀 하지 말자



김진우 우산중학교 교감

교문이 출고 있다. 마른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발자국이 없고, 배움터 지킴이도 비어있다. 올해 학급 단합대회에는 유행처럼 물총놀이만 많았는데 그 북적이던 수돗가도 몇 방울 물만 똑똑 떨어지고 있다. 통통한 대나무를 꾸해 마디에 구멍을 뚫고 형질감은 막대로 물을 품던 시절에는 물총 만든 재미도 쏠쏠했는데 지금은 제품도 다양하여 운동 물바다를 만들어 놓는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누구네 해도 학생이 없는 교육 현장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방학으로 괴괴해도 얼마 후면 돌아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은 학교 분위기도 견딜 수 있지만 전교생이 몇 명 되지 않는 그 교정의 쓸쓸함은

어떻게 상상해 본다. 시멘트로 만든 이순신 장군과 독서하고 있는 소녀상이 지키고 있는 폐교를 보면 더욱 그렇다. 교정을 둘러싼 나무사이로 무성한 잡초와 풀벌레, 매미 소리 아늑하면 모든 것이 무성하게 느껴진다. 무슨무슨 기념으로 심었을 수목이나, 어느 위치에 있던 인사가 남긴 기념 식수도 다 지난 일이다.

아트조경 디자이너 이수환, 그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전직 교장선생님이다. 교장직역 연수나 여러 기관의 각종 연수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는 명장사이다. 강의 들을 떠나 자료집을 볼 때마다 조경의 진정한 의미와 여백의 아름다움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기관, 개인 집의 조경을 위해 그의 조경 미학을 공유하고자 한다.

“조경은 공간 디자인이다. 조경은 바로 ‘나무 심기’라는 참 잘못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 인사철이 되면 교정의 수목들이 얼마나 옮겨 다녔던지 학교의 나무가 미리 알고 별별 떠나는 유머도 있다.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여행은 가라고 했듯이

심을까 말까 하는 나무 심지 말고, 버릴까 말까 하는 나무 버려야 조경이 산다. 더 많은 햇살도, 더 넓은 공간도, 더 여유로운 생활도 다 비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선 버릴 수 없는 마음부터 버리자. 버리는 것도 용기고 지혜다. 지금 학교에는 버릴 것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만 잘해도 명품 학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정의 긴 휴화는 한 순간만 만인에게 짜증을 안겨주지만 교정이 남기고 간 퇴임 기념식수는 관리가 잘 안 돼 흉물이 되어 두고두고 학교엔 애물단지, 후임자에게는 스트레스다. 이들을 남기고 싶은 일순간의 착각으로 공공의 냉소를 받아야하겠는가. 퇴임기념 식수 행위는 개인 공명심의 발로일 뿐 교육과는 무관한 일이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의 해로움을 제거할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이제 조경을 한담시고 나무를 심어 여백을 없애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형화분을 다량 구입해서 현관 앞에 늘어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수목, 구조간판, 돌, 표지석, 기

념탑, 꽃 등 온갖 것들을 꾸역꾸역 심고, 넣고, 옮기고, 세우고, 높이고, 채우는 것이 조경인줄 안다. 주변의 조화를 생각해 서 심었는데 후임자가 와서 몇 번을 옮겨는지 수형이 말이 아닌 나무도 있고, 수년이 되어도 지지목을 그대로 두어서 지지목이나 철사가 나무에 박혀있는 모습을 보면 말 못하는 나무여서 그렇지 잔인하기까지 하다. 학생들의 동선(動線)에 심어 통행을 방해하고, 나무 곁에 또 나무를 심어 시야를 가로막고, 사람 출입이 금지된 수목 우선의 정원은 인본주의를 무시한 하해리 조경이다. 이름난 공원이나 휴양지, 아름다운 학교, 스마트한 개인 주택 정원이 뻣뻣한 것을 보았는가. 탁 트인 공간에 몇 그루 포인트로 심은 나무와 파란 잔디에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게 안기게 된다.

오는 9월이면 우리 학교에 새로운 학교 장이 오게 된다. 교정의 수목들에게 너무 멀지 말라고 이른 뒤에 조심스럽게 건의해 볼 생각이다. “조경 좀 하지 마시지요”라고.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社說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예외 규정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정탁문화 청산의 기폭제가 될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헌실적인 시행령 손질과 보완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에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걱정을 덜기 위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9월 28일부터 현 단계로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 상한 규정이 시행될 경우 내수업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농·수·축산물에 예외를 뒤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아예 가격 기준을 5만 원(식사)-10만 원(선물)으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문에도 정부는 현재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 식사비나 선물 가격 기준 상향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농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업무를 배제하는 게 골자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광주 전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국민의당이 정작 농어가 가장 많은 전남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한 셈이 되고 말았다.

김영란법은 현재가 합헌으로 판단됐고, 비리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 대도 높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 축산농가가 불리해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농수축산업이 주축인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 식사비나 선물 가격 기준 상향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농

모두 합심해 내년 지역현안 예산 끌어와야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광주 전남에는 아직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늘 그랬지만 올해는 야대(野大) 국회가 된 터라 더욱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끌어 올 수 있느냐가 지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시에 전남도는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과 본격적인 예산정책 협의회를 여긴다. 우선 광주시는 오늘 오전 더민주와, 이어 모래는 국민의당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호남에 근간을 둔 야당이 광주·전남의 기반시설사업, 수련사업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을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현안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 5·18민중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내대

생산지 조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 20건에 대한 국비확보 지원도 절실하다.

전남도 역시 오늘 오후 더민주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특별히 무안공항 회의실에서 갖는다. 무안공항에 대한 정부 투자는 사실상 제로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래 오후 국민의당과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남도교육청도 참여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린다. 도의 현안으로는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이 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여러 사업 추진과 SOC 확충 및 세계대회 추진 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정치인들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내년도 지역 현안 예산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전 문화재청장)가 펴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강진과 해남 등 남도에서 첫발을 내딛는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 아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새록새록 갖게 해 주는 책이다.

1권에 실린 해남 대흥사 편을 보면 추사 김정희(1786~1856)와 원교 이광사(1705~1777)의 서체(書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못 흥미롭다. 형조참판(현재의 법무 차관)을 지내다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된 추사는 초의선사를 만나 대흥사 대웅전에 걸린 원교의 현판을 못마땅

교수는 두 사람의 글씨에 대해 ‘쉽게 말해서 원교체는 손칼국수의 국수발 같고, 추사체는 탕수육이나 란치완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맛과 멋이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원교 이광사라는 이름 석 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책을 통해서였다. 51세 때 나주 과서(佛書)사건에 연좌돼 함경북도 부령으로 유배를 떠나 73세에 안도 신지도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고단한 유배생활을 했던 원교. 그가 그

원교 이광사

중에도 서에 이로서인 ‘서결’(書訣)을 짓고 ‘동국진체’(東國眞體)로 불리는 서체를 해 한다. 이에 초의는 원교의 현판을 때어 버리고 대신 추사의 글씨를 달았다. 하지만 7년3개월 후, 63세에 귀양이 다시 대흥사에 들려 초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귀양길에 때어 내라고 했던 원교의 현판이 있거든 내 글씨를 때고 그것을 다시 달아 주게. 그때는 내가 잘못 보았어.”

현재 대흥사 대웅전에는 원교가 쓴 ‘대웅보전’(大雄寶殿) 현판이, 요사채에는 추사가 귀양살이 가면서 쓴 ‘무량수각’(无量壽閣) 현판이 걸려 있다. 유

원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였다.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곧추세운 빛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리라.

원교 이광사의 서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는 10월까지 은암미술관(광주시 동구 대의동 32)에서 열리고 있다. 예서와 초서 등 다양한 서체로 쓴 시문과 서첩 등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색 바랜 종이에 배인 묵향(墨香)과 붓글씨를 통해 시대를 이겨낸 한 선비의 모습을 본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세월호가 진도에 있어야 하는 이유



한기민 재택진도군항우회장

지금도 팽목항은 한 서린 맹골만을 바라보면서 소리없는 아우성을 토해낸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만 아홉 명의 낮은 2년이 훨씬 지난 시간 속에서도 아직 세상구경을 못하고 있다.

발달한 기술수준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가족들의 입장에서 답답하다 못해 가슴 터질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인양업체가 결정되고 현장에서 다음달 인양을 위한 준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세월호를 인양한 후 목포신항으로 옮겨 정비를 한 뒤 진도로 옮긴다는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발생 초기 우리 지역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일정이 지연 지남 지금은 어차피 세월호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만큼 진도에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다.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진도는 알게 모르게 유·무형 피해를 많이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세월질 기념공원이나 안전 체험관 등 부근에 세월호를 옮겨놓음으로써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고 본다.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산교육장 역할도 할 수 있어 더욱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답은 명확하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해외어를 가만 반드시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침몰한 ‘에리조나호 기념관’을 찾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인들은 약 2000명이 숨진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방심한 전쟁의 교훈’을 듣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빼어난 세월호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인 진도에 세월호를 옮겨 놓아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해진다.

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과 지역 여

론을 감안,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세월호는 진도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인양하는 순간 세월호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 분명한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포로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진도인들에 여파가 미친 경제적 손실과 부정적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진도에 두어야 한다는 게 진도인들의 여론이다. 대책위나 관계자들은 정비 후에 다시 진도로 유지하면 된다고들 하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인양선이 필요로 하는 수심이 맞지 않아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사고현장이 보이는 지점이나 조도항 인근에 유지해서 정비를 하면 될 것이다.

현장과 멀리 떨어진 목포 신항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유가족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고 현장에 와서 보아야 현장감각도 있고 아픈 심정을 어느 정도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여론도 찬·반으로 갈리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승적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현명함도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판단이다.

둘째, 여러 가지 세월호 관련 기념관이나, 추모공원, 안전체험관 등이 들어서는 팽목항 부근이 최적지라는 것이다. 준설 등을 통해 최근점 지역으로 옮겨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조도항 부근이라도 인양 후 고정된 정박시스템으로 운용하면 어떨까 싶다.

각종 기념시설이나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할 계획이라면 구태여 목포로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심지어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약간의 세척작업 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사고원인에 대한 교훈이나 사고예방 교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정비나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형보존을 하지 않고 정비를 한다는 교육적으로나 교훈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그만큼 저하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허점을 남기고 있다.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리는 길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울타리를 튼튼히 쌓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를 어디에 두는 것이 그동안 피해를 입으면서도 사대해결을 위해 애써 왔던 진도사람들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